

수난 전후의 주님 기도

(누가복음 23:33~49)

장 차 남

(부산,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

주님의 십자가 수난은 고난과 비애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자시기 즈음하여 그 마음이 고민으로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친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마 26:37~38).

번민과 고통, 비애와 고독의 시간인 수난기에 우리 주님께서서는 과연 어떤 주제로 기도드렸을까요? 수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함께 명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절박하고 긴장된 순간이었기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주제로써 가장 간절하고 진실된 감정으로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난을 전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성만찬을 잡수신 다음 말씀을 강론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자신의 성업과 제자들과 온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높고 장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히 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 요 17:11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자들 사이에 노중에서나 좌석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자주 논쟁이 있었고 ‘주의 좌우편’에 앉는 문제로 서로 시샘하는 형편인고로 성부에게로 갈 때가 임박한 주님으로서는 제자들의 하나되는 문제가 절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중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되는 것을 참으로 원하셨습니다. 신약 위경에 의하면 초대 교부 클레멘트나 익나시우스의 서신들에도 교회가 하나되기 위한 간곡한 권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되신 무형적인 교회는 하나뿐입니다(고전 12:12,13). 그래서 엡 4:3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영성적 교회로서만 아니고 제도적 교회로서도 불필요한 분열을 지양하고, 하나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에 하나이던 한국 장로교회가 해방후 다섯 갈래, 열 갈래로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분열의 상처 속에서 성도들 간에는 불화와 반목이 생기고 교회들 간에는 정죄하고 사갈시(蛇蝎視)하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 2세기에 진입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인만큼 성숙한 교회로서 성도들 간의 포용과 단합, 교회들 간의 화해와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또한 광복 45년이 경과하도록 강토와 민족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고난과 비애의 세월을 보내는 우리 나라 현실을 앞에 놓고 민족의 통일과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지 않는 동포는 없을 줄 압니다. 여기에도 하나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며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신 그 마음을 헤아려 모든 분야에 하나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 17:1의 말씀대로 보리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2.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 곧장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러 시내 저편, 자주 찾으시는 감람산의 겐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하시고 돌 던질만큼 따로 자리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되 눅 22:42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도왔고 땅이 땅에 떨어지되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히 5:7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에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과 피땀의 기도를 드리신 주제가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롬 8:26,27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뜻의 일치가 계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함에 있어 전제되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입니다. 내 뜻은 어디까지나 나의 희망 사항일 뿐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거나 앞지를 수 없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때 이는 내 정욕 타인 줄 알고 재빨리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간절히 하고 끈질기게 하고 열심히 해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엔 응답이 없는 법입니다(약 4:3).

주님께서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사형 죄수가 되고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도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대 온갖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다 감수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서도 고결한 기도입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겐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한 후 그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음은 총독 빌라도에게로, 그 다음은 헤롯왕에게로, 또 그 다음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고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사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오전 9시경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후 첫번째로 하신 말씀이 눅 23:34에 의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를 잡으러 왔던 성전의 군병들과 음모자의 하속들, 그에게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했던 빌라도 총독, 호기심에 그를 구경코자 했던 헤롯왕, 조롱하고 채찍질한 군병들,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을 친 군중들이 다 자기를 몰랐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잠들므로 주님의 뒤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입버릇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되 과연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용서가 있었던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일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 받은 자가 내게 겨우 백 데나리온 빛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 넣는 비정한 인간이 바로 내가 아닌지요. 용서란 과실(過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미우라 아야꼬 여사의 용서에 대한 문제). 그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물론 용서해야 할 것이지만 깨우치지 못할지라도 그가 무지한 때문이라고 알아 연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도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4.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흔히 ‘가상 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첫번째가 눅 23:34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이며 두 번째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눅 23:43의 말씀이며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는 요 19:26,27 말씀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한 마 27:26의 말씀이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하신 요 19:28의 말씀이며,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하신 요 19:30의 말씀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하신 말씀이 눅 23:46에 있는 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큰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상 칠언은 첫번째가 기도이고 마지막 번째도 기도입니다. 곧 그의 생애도 기도에서 시작하여 기도로써 끝 마친 것입니다.

우리도 한 평생 삶을 막음하는 자리에서 내 영혼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절망감을 가지는 것과 내 영혼의 갈 곳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과의 사이에는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처럼 천양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 영생의 세계로 진입하는 죽음, 얼마나 멋진 생의 막음입니까? 고로 스테반 집사도 주님을 본받아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고 행 7:59에 말씀했습니다.

제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생의 최종적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는 오직 영혼의 구원

과 멸망에 달린 것임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키델민스터의 위대한 설교자 리처드 백스터는 언제나 “죽어가는 사람이 방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듯 했다(He preached as never sure preach again and as a dying man to a dying man)”라고 자기의 설교 정신과 자세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가장 절실하고 요긴한 것을 진실한 감정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수난 전날 만찬 후 기도와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들은 참으로 귀한 기도 제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도 그대로 나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되기를 열망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저희의 허물과 죄가 용서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